

概括적으로 칼을 해서 龍歌의 意味가 그 뒤에 붙은 漢文에 依해서 註解된다기 보다 오히려 漢文註解에 기대어 있다고 보여지는 點이 있으나 이는 龍歌의 基本性格中 매우 重要한 것의 하나가 되어 마땅하다. 이것은 그 漢文註釋에 依해서 비로소 龍歌의 意味가 補完됨을 意味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 漢文의 散文의 內容을 위한 「에티컬」 구실을 하고 있는 셈이니 龍歌의 「포에지」가 漢詩의 散文化에도 기울어진 그 事實과 對應되는 셈이다.

各章二行의 對句的 構成에 對해서도 비슷한 여기가 可能해진다.

金思燁博士는 對句構造를 龍歌의 特色으로 크게 내세우고 있으나 이것은 論難의 餘地가 있다. 對句의 各句는 「이미지」構成과 마찬가지로 서로 「相異속의 類同」을 形成해야 하고 이로해서 생기는 調和된 衝突의 力動感 그것이 詩의 內的 律格의 軸대가 되어야 하겠는데 龍歌의 경우는 二句가 主從關係를 이루고 있을 뿐이니 力動感은 없는채 去勢된 對句가 되고 말았다.

이로써 漢詩的 포에지의 去勢的인 變容에서 龍歌 Prosody의 文體가 結論이 얻어지려니와 이는 龍歌의 文體源泉 곧 「에티몬」이 詩歌를 美學的으로 보다는 儒敎的 功利感으로 다루었다는 데에 그 窮極的인 原因이 있겠고 또 다른 原因으로는 龍歌의 한국 詩歌傳統에서의 隔絶이 있겠다.

「...ㅎ니」등의 몇간의 詩形을 위한 努力의 자국이 안 보이는 바 아니나 그것마저 龍歌와 月印千江之曲에 限定되다 싶이 한 것도 傳統에서의 隔絶을 意味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9月 29日 午後部

<司 會>

앞서 第一部에서 龍飛御天歌에 대한 語學的인 考察이 있었읍니다. 時間關係上 漢譯詩와의 關係問題등이 一部에서 다루어 졌읍니다만, 이제부터 文學的인 考察, 卽 形態成立의 問題, Genre에 問題, 文學的인 價値問題 등등과 아울러 音樂과의 關係問題가 다루어 지겠읍니다. 이러한 問題들이 廣範하게 다루어지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하니, 晚時의 感이 없지 않읍니다. 오늘의 이 기회를 계기로 이 마당에서 다루어질 諸問題들이 철저히 究明될 날이 早速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順序에 따라 發表을 進行하겠읍니다.

龍飛御天歌의 Rhythm(形態考)

李 能 雨

龍歌가 가지고 있는 Rhythm을 나대로 헤아려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批判을 들어 보는 것이 本 Symposium의 目的인것 같습니다. 龍歌의 Rhythm을 여러분께 提示하기 前에 먼저 대체로 우리 國文學에서 Rhythm을 헤아리는 方法

問題가 내가 보는 바로는 아직도 그리 썩 確定되지 않은 것 같아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이 解決되면 自然的으로 거기에 立脚해서 龍歌의 그것도 헤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從來 우리 律文(Verse)의 헤아림에 있어서 字數考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卽 趙潤博士께서 時調字數考를 하신 바 있고 이 뒤 거진 最近까지 무거운 比重을 가진 論文들에 있어서조차도 이 字數考로서 우리 律文을 우리 國文을 헤아렸던 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字數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文章 우리의 律文을 헤아리는 適格한 方法이나? 하는 것이 우선 疑心된 바 있고 또 結果로 보아도 썩 正確하지는 않은 바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글자를 通해 發表한 바가 있습니다. 나로서 字數考란 大端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字數考를 正確한 方法이라고 할 수 없다면 무슨 方法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代案(나대로의) 같은 것을 지금도 생각하고는 있지만 1958년에 한 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字數考로는, 方法으로서 大端히 不安스런 것이나, 이렇게 여기게 된 바는 原理的으로도 問題되지만 結果的으로도 print 中에 參考欄에서도 提示해 드렸지만 가령 時調의 問題에 있어서 時調의 基本型이라는 것이 3434, 3434, 3543 라 극데 이게 基本型 卽 Principle Type 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아는 時調中에 60% 以上은 다 여기에 맞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맞는 것은 그전에 헤아려본 일도 있습니다만 아마 1 할도 다 안되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자 이뒤에 어떤 국문학사에 나온것을 볼 것 같으면 이런 3434, 3434, 3543 이것이 기준형 이라고 하면서도 실제의 수를 볼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 變化性이 있을 수 있다, 卽 3章 12句라는 원칙은 변할 수 없다 하지만 各句의 數는 3이 4가 될수가 있고 4가 3이 될 수 있고 3이 5가 될 수 있고 4가 5가 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5가 6으로, 혹은 7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을 볼것 같으면 大端히 變化무쌍한 것이 우리 時調다, 융통성이 많은 것이 우리 時調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의 Form 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원칙을 규정한다고 하고서 무원칙한 결과에 도달할 수가 있나요.

要件대는 글자만을 하나둘 센다는 것이 우리 말을 헤아리는 데에는 若干 不足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상당히 무게가 있어야될 論文이 나온바를 봐도 方法上 何等의 進歩나 發見이 없었습니다. 가령 龍歌에 대한 形式을 律性을 헤아린 것을 金思燁氏 論文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조시대가요연구」에 나와 있는데 基本形이 提示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字數考를 한것으로 月印干江之曲도 提示가 되었는데, 이것을 내가 뭐 일부터 험뜯기 위해서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분이 작수고를 한 자료

를 고대로 맞추어 봤습니다만 이 基準型에 맞는 Verse line이라는 것은 月印千江之曲에서는 한 line도 없었습니다. 月印千江之曲의 基準形(principle type)이라는 것이; 上句는 3434 혹은 43이고 下句는 35,4 혹은 44,35 이런 等인데, 여기 맞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龍歌도 불과 10% 미만, 이런 미만의 line 밖에는 해당, 여기 基準型에 맞지 않아요, 이렇게 될것같으면 亦是 여기에 對해서도, 이것을 여기서 기준형으로 하지만 여기에 넘나드는 것이 龍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서도, 내 생각같아서 그런대로 解決이 안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다더 正確한 어느 Form을 딱 Principle Type을 定하여질 수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으로 더듬어 본 것이 字數考에 대한 懷疑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치되는 것 어떤 方法이 대치될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다행히 지금 현재 글자라고 하는게 모음을 中心으로 해서 응결이 된, 그 字數를 세나, Syllable을 세나 다 마찬가지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點에서 본다면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요컨대 그 한字 한字를 세어도 좋은데 우선 세는데 있어 어떤 그 原則이 다소 없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할것 같으면 一切의 品詞는 다 獨立的으로 떼기로 하고 센다든지 或은 어느 종속적인 關係에 있는 것은 위에다 붙여 센다든지 우선 이런 등등의 통측을 세워 놓고 세어나가야 할텐데 볼것 같으면 그렇게 센것도 같으나 어떤때는 또 그렇지 않은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글자를 세는데 어느 뚜렷한 原則이 서지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러자 나는 생각하기를 물론 글자수를 세는 것은 좋지만서두, 이렇게 하나둘 세 넷 품사별로 센다던지 할게 아니라, 약간 좀 복잡할지는 모르지만서도 우선 심리적인, 우리 마음의 예비 를 가지고 또 文學的인, 文章內容이 풍겨주는 의미를 참작을 하고 그리고서는, 글자수를 세든지 Syllable數를 세든지 해서 그 單位를 포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것 같으면 가령 석자, 혹은 글자세개라던지 세 Syllable이라던지 해도 좋지만 이걸 하나의 律文을 해 아리는데 單位로 삼는다(결과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품사적으로 꼭 3字가 된것도 해내야 겠지만 意味的으로도 생각하여야하고, 또 전연 意味的으로는 가령 6자 가진 어느 word, 單語가 있달것 같으면 意味的으로 한테 붙쳐져야 하겠지만서도 우리가 文章을 읽는 心理的으로는 半으로 쪼개진다, 이런것은 감안을 해서 요컨대는 무슨 心理라고 할가 그런데 입각해서 어느 單位들을 포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그 單位들을 포착을 했었습니다. 그 단위 포착도 그렇죠. 푹푹 떨어지면 뭐 問題가 다 없는 것이죠. 가령 고려가요를 읽으면 글자 세개 혹은 Syllable로 되어있는게 많습니다. 或은 이조말기 가사는 녀字로 되어 있는게 많습니다. 이런 결과로 되었으면 便한

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늘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缺節 缺字數라고 해도 괜참고 缺音節이라도 괜참습니다, 이런거를 집어넣지 않으면 거의 포착이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過音節을 생각했습니다. 가령 龍歌의 제 첫구절 “해동륙룡이 나르샤 일마다 天福이시니…” 이 노래에 있어서, 六龍이 나르샤는 다 석字로 되어 있지만서도 「해동」 같은 것은 두字 아니까, 자 이것을 233이라고 볼게 아니라 이전 다 3이다, 말하자면 foot로서는 3일뿐이다, 「해동」이라는 foot—단위는, 缺음절, 缺1음절의 역시 3音節 foot인 것이다, 이렇게 보자는 것입니다. 또 過音節도 맞찬가진데 둘씩 둘씩 나가다가 셋이 되는 경우라든지, 셋씩셋씩 나가다가 넷이 되는 경우라든지, 이는 다 맨 끝이 過音節들이다, 이렇게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음절을 집어넣고 缺음절을 집어넣고 해서 單位를 먼저 포착하지 않으면 너무나 變化無雙해서 견딜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선 원칙적으로 foot를 생각하되 너무나 알찬 foot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缺음절도 過음절도 생각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缺·過音節은 최소한 缺1音節 最大限 2音節이지만도 어느 경우에는는 2音節까지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實際를 當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된 것이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出發이 無原則한게 아니냐? 꾸중을 들을지 모르지만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結果적으로 外國의 스캔손을 模倣을 했을가요? 어떻든 그런 것들을 잡아 내가지고는 foot를 마련하는데 龍歌뿐 아니라 全體 우리 나라 Verse를 헤아리는데 必要한 우리 國語 foot를 設定해보았습니다. 몇 音節이 우리 國語에 맞는 verse unit가 될 수 있느냐에 對한 考案을 해봤어요. 결과적으로 2音節, 3音節, 4音節 세개가 國語 verse를 헤아리는 foot로서 使用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2하고 4하고가 문제인데. 3도 어느 文章 心理가 作用할 땐 順탄한 3도 안되지만 2와 4의 문제에 있어선 2가 있을 것 같으면 4는 필요없지 안는냐? 4라는 것은 2·2로 쪼개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나와질 수가 있는 問題입니다.

나도 初期的인 생각으로는 역시 4를 2·2에 不過한 것으로 생각하고 結局 2音節 3音節 둘만을 생각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기계적이란걸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3音節은 대체로 별문제가 없습니다. 말씀드릴 時間이 없으나 4音節을 許用하고 2音節을 許用한 까닭은 4音節은 우리가 無意識的이든 意識的이든 간에 여러해를 두고서 4·4調云云의 意識을 한 바 歷史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言辭가 非科學的이라면 勿論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現實로서 于先 보아두고 또 만 理由를 찾겠습니다. 卽 科學적으로 鄭炳昱 教授께서 國語辭典에서 실지로 音節數를 調査한 바가 있습니다

(國文學散藁). 그 전에 崔鉉培先生 回甲論文集에 발표하신 것을 보면 3 Page 에 전개해 놓았으나 어쨌든 2 音節이나 3 音節로 된 어휘가 많지 않아도 여기에 우리 나라에선 조사 (토)라는 것이 붙어야지만 반드시 하나의 Sentence 가 이루어지고 하나의 Sentence 를 이룰때는 助詞가 作用도 하고 또 語尾라는 것이 붙기 때문에 4 音節로 될 可能性이 多分이 많다는 科學的인 Data 를 하신 것입니다. 나는 보다 心理學的으로는 비록 들로 쪼개지는 限이더라도 한 verse Unit 로 생각지 않으면 안되겠다 할 때는 4 를 許用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2 는 해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達上 實際로 볼것 같으면 그렇지 않은 바가 나오거든요. 가령 高麗의 景幾體歌나 近世의 民謠 아리랑아리랑 아라리요를 보면 3.3.4 아리랑이란 3.3.4 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전체 다른 것과 比較할 때는 誤解가 생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3.4 라는 건 foot 가 3 音節로 形成된 foot 2 개하고 4 音節로 형성된 foot 한개 하고로써 3 音보(Trimeter)다라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리랑」을 繼續해볼것 같으면 그게 Trimeter 인가는 疑心스러워요. 이것이 trimeter 이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한테다 묶든지, 앞에도 accent 를 찍어 널려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러든지 이렇게 묶어야 될텐데 귀를 기우켜 볼것 같으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 리요, 後半에도 accent 가 나온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라리요」는 4 音/foot 이 아니라 2 音 2 音으로 된 foot 두 개로 보는 것이 順탄할 것으로 내겐 느껴집니다. 즉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는 Trimeter 가 아니라 Tetrameter 로 音識됨이 옳지 않지 않나, 勿論 사람에 따라 다를지 모르지만 내 느낌은 그런것 같습니다.

이래서 Syllable 두 개를 역시 한 foot 로 認定해야 할 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龍歌에 그런 경우가 더러 나오지만 여기에서 例를 많이 드는 것이 여러 분에게 便하겠지만 이렇게해서 2 音節을 4 音節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Verse 를 헤아리는데 foot 로 Verse Unit 로 잡지 않으면 안되겠다 設定했습니다. 그래서 要컨대는 metric foot 를 設定해야겠다 設定하되 2 Syllable, 3 Syllable, 4 Syllable 세 種類의 foot 를 가지고서 Scan 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 音節이 「아리랑」이라든가 「아라 리요」라든지 이렇게 2 개 3 개 알찬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글자 하나가 비는 限이 있더라도 全體에 제약된 바로서 받아 들여가지고서 缺字節(缺韻)이든지 過音節을 認定하자 하는 것입니다.

몇 개의 Category 를 만들어서 Model Case 라면 거기에 많이 들어가지만 가끔가다 좀 變態的인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봐서 그 몇個의 Category 에 집어 넣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 雜多한 것을 雜多한 그대로의 羅列로서 하는 것은 無意味한 일이고, 또 珠板질을 해가면서 平均值를 내서 提示하는 것은 정말 생각할 문제입니다. 要컨대 文學이라든가 Verse 같은 것은 그 全體가 하나의 生

命體입니다. 生命體를 生命體로다 다루며 살리면서 받아들여야지 그걸 다리는 다리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平均하기 위하여 토막을 내면 그 生命은 죽어버리고 그걸 平均해 맞추면 그건 그때 살았었던 그 Verse가 아닌 것입니다.

以上과 같은 준비를 가지고서 龍歌를 Scan을 했었어요. 하기전에 어차피 龍歌의 律性을 말씀드릴 계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첫째 龍歌에서는 커다랗게 句節(Poetic Phrase) 意識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龍歌 125章에 그 첫章은 한 줄이고 끝 제 125章은 그야말로 그 울성을 헤아릴 수 없이 大端이 긴것이기 때문에 除해버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對句行으로 되어 있어서 總 247行이 되는데 그 Line 한개 한개가 하나의 律步를 갖기 前에 이런 句節(Poetic Phrase)들을 하고 있는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4區分으로 한 行을 區劃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내기는 쉽지요. 동그라미들을 句節 句節에 쳐 봤으니깐 보기도 쉽고 또 漢文詩로다가 똑같이 4句씩 번역 해 봤으니깐 쉽지만서도 이진 全體를 헤아리는 한 文章 句節이 되기 때문에 이런 句節意識을 우리가 再認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걸 생각했어요. 이걸 再認識하지 않으면 이 한 文學에 대한 全體律性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再認識하고난 다음에 이 句節內에서의 律性을 먼저 봐야되지 만일 全體律步를 한꺼번에 따져 들어가면 약간 混亂이 일어나고 또 結論的으로 말씀드려 도리어 안되는 結果가 많아요. 할 수 없이 句節意識을 再認識하고 句節內에 있어서의 律性을 먼저 把握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把握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集計를 한다든지 원 그대로 그려 나간다든지 합니다. 그런데 이 句節을 볼 때 龍歌에는 한 行 one line이 네개의 律句로 形成된 것이 하나의 큰 傾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傾向이지 全體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律句가 셋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第1章 같은 것 「海東六龍이 누르샤 일마다 天福시니 古聖이 同符하시니」 여기까지 셋입니다. 요거는 foot 意識을 갖기 때문에 그 셋과 한데 습하면 이것은 6音步다, foot 3音節을 가진 音步라고 헤아릴 수 있습니다만서도 簡單하게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 있고, 또 사실 意味的으로는 네 律句인데 scan을 할 때는 세 律句로 나타난 것이 바로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또 意味的으로는 句節이 넷인데 scan할 적에는 다섯 律句로 形成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것이 龍歌의 絕對的 傾向은 아니지만은 셋으로 되든지 5로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넷으로 되든지 이렇게 판 밖에 있는 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律句內에서 세 律句를 가졌다든지 4, 또는 5 律句를 가졌다든지 律句內에서 律性을 파악해야만 되는데, 첫째는 한 律句가 소위 4.4 調로된 律句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4 調라는 것도 여기서도 缺음절, 過음절을 적용시키지 않을것 같으면 안될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3·3 調라는 것 이런 律句를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 print에 예든 것은 좀 어려운 것이지만 그 Category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또 언제든지 全體의 제약을 받아야만 됩니다. 다음 2·2·2 調, Syllable 둘이 한 foot가 되어 가지고서는 걸음을 세번 걷는 律性을 가진 것, 또 3·3·3 調 Syllable 셋이 한 foot가 되어가지고서는 걸음을 세 발자국 걷는 律性 그런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Syllable 두 개가 두 발자국 짝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은 4·4 調에 반에 半 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요. 2·2인데 4를 두 개로 쪼개지 않으면 scan이 되지 않아요. 「武德을 올라시니」 이것은 4·4 調입니다. 3·4로 따지지 말고 맨 첫번을 缺 1 音節로 봅니다. 그 다음에 「武德을 올라시고 武德으로 百姓을 구하시니」 이럴 적에 이 「武德」을 百姓쪽에다 붙일 수도 없고 위에다 붙일 수도 없고 천상 이것을 獨立的인 律句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도 이런 境遇는 할 수 없이 들로 쪼개 놓았습니다. 이걸 안쪼개면 4로 되는데 그러면 全體行이라는 것은 4·4·4·4로 따지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할른지 모르나 이전 아까 「아리랑」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리랑 아리랑 아라 리요」는 Tetrameter 지 Trimeter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武德을 올라시고」는 5 律步가 아니라 6 律步로 scan 함이 順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律性을 우선 헤아려서 대개 5 個種類의 性質的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重要的 것은 이런 結果를 우리가 어떻게 規定지어야 할 것인가? 말하자면 이 中에서 빈도수가 第一 많은 第一 첫번째 것을 이것이야말로 龍歌의 基準型이다라고 내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問題입니다. 내 생각은 내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頻度가 절대적으로 많기 前에는 내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方法으로 그러면 第一 첫句는 첫句대로 환산해서 平均을 내고 第二句는 第二句대로 平均을 내고 하면 principle verse line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 이전 더욱 안될말입니다. 字數考에서 이미 犯한 일이기 때문에 산 生命體를 그대로 가지고 다루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며는 龍歌의 principle line이란건 두 가지 解答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는 내가 지금 헤아려낸 verse line이 그 方法이 根本的으로 틀렸기 때문에 principle type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結論과 또 하나는 龍歌에 어떤 傾向的인 그런 line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雜多한 line으로써 形成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疑惑도 가질 수 있습니다.

前者대로 할 것 같으면 내 根據가 틀렸다면 再言할 必要가 없고 或是 萬一이라도 龍歌가 하나의 洗練된 律性을 가지고 verse로서 하나의 세련된 傾向을 갖지 못한 事實이라면 여기에 對해서 어느 定義的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생각으론 이야말로 當時사람들이 하나의 Rhythm을 세련되게 捕捉하지 않았던 結果가 아닌가? 다만 無意識的 潛在的 律文 Rhythm 生理의 發露에

지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조금도 遺憾될 것은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그뒤 龍歌가 發表된 뒤에 우리 先祖들이 어떤 Rhythm에 좀더 敏感하고 좀더 洗練된 마음의 準備라든지를 가졌다면 李朝末期에 있었던 4.4 調以外에 龍歌가 가지고 있는 그 빈도표에 나타난대로 적어도 대여섯 種類 혹은 그 以下라도 좋으니 보다더 Variation이 많은 Verse들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었을것을 이런 생각으로 結論을 스스로 내려봤습니다. 要컨대 龍歌의 律性은 素養的으로 大端히 많은 素質的으로 많은 Variation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한군데로 洗練 되지는 않은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Symposium이고 時間도 制約이 되었고 하여 이만 끄칩니다.

〈質 疑 應 答〉

〈司 會〉

朴巖義 先生으로부터 자수와 음수에 對한 것인데 李能雨先生님이 올라오신 다음에 보충 質問을 正確하게 答辯하기 좋게, 質問者가 發表者보다 말이 길지 않게, 要領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質 問〉

우리가 詩歌의 리듬을 찾는데 있어서 여태까지 字數考를 주로 따졌는데 그 字數를 따지는 것은 不適當한 點이 많고 또 미급한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지로 따지는데 있어 그 기준이라는 것이 問題가 돼서 그래서 그 근거와 기준에 對해서……

〈李 能 雨〉

우리나라 말은 다행히 알파벳 이지만 역시 母音을 中心으로 해서 音節이 되어있기 때문에 字數考나 音節考나 마찬가지로입니다. 要컨대 자수고개 좀 未及한 감이 있다는 건 字數考에 있어서 어느 때는 品詞別로 區分하는가하면 어떤 때는 品詞別이 아니고서 한 單語가 네마디로 되었는데 둘로 쪼갠다든지 한 單語가 다섯으로 되었는데 둘, 셋으로 쪼갠다든지 하는 그런 原則이 確實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느끼는 느낌하고 또 내가 생각하기는 Syllable이나 字數나 마찬가지로만 느낀바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生理的으로 좋고 나쁘고 아름답고 밍고 이런 거를 區別한거와 마찬가지로 역시 하나의 律文을 이룰 것 같으면 그런 포착하는 心理反應이랄지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冊에도 그런 말이 써 있더군요. 가령 一定하게 똑같이 時計소리 같은 것 그건 도저히 強弱이 있을 수 없는 소린데(기계만 正確하다면)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것은 똑같이 느끼지 않고서 (똑딱 똑딱) 하나는 똑 하나는 딱으로 느낀다 말입니다. 또는 (똑딱딱 똑딱딱)으로 卽 셋으로 느낀다 말입니다. 말하자면 強度도 똑같고 durée도 똑같은데 둘 乃至 셋으로 포착하는 生理人間 心理가 있지 않는가? 그것이야말로 基準이라고 할런지? 그것이 基準이되고 文學上에 있어서는 文字가 文學內容이 주는 意味를 받아들여서 거기서 습치되는데서 역시 둘, 또는 셋으로 뭉친다든지 혹은 아까대로 우리 國語에서는 넷으로 까지 뭉쳐져서 봐야한다, 어느 경우는 넷을 셋으로 認定도하고 둘로도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例 5p에 「武德을 9르시니, 武德으로 百姓을 구하시니」 여기서 어떤 武德은 석字 三音節인데 네 音節로 看做하고 다음(武德으로)는 네 音節인데 둘로 分離시키느냐? 하셨는데 至當하신 말씀이신데 이걸 그냥 눈으로 볼 것 같으면 分離시킬 何等의 理

由가 없습니다. 아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도 눈으로 보면 trimeter 지만 우리가 그걸 scan 할 것 같으면 도저히 trimeter는 아닙니다. 李惠求 先生이 말씀하셔서 또 새로着想이 되었습니까만서도 아까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2·2로 생각했는데 역시 우리 古代音樂을 볼 것 같으면 혹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말하자면 foot 3, tetrameter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라고 생각한 거와 마찬가지로 「武德으로 百姓을 구하시니」 이것도全體를 한 눈으로 쭉 볼 적에 가운데 있는 「武德으로」가 위에 붙을 수도 없고 의로 붙이면 Syllable 單位 unit 넷 가진 곳에 3音步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거의 있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붙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武德을 아라리오) 이것이 두音步가 되고 (武德으로)가 한 Metri가 되고 百姓을 아라리오가 Metri가 되고 이렇게 할 적에 번져번 Metri가 두音步 다음이 두音步 마지막이 두音步 이렇게 세개 Metri로다 구성된 것으로서全體를 파악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같은 Metri이지만 區分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헤아리면 전혀 증거될게 없지요. 要컨대 人間生理가 마치 時計 소리를 「똑딱, 똑딱딱」으로 意識한다든지 客觀的으로 볼적에는 똑 같은 Tone을 가지고 똑 같은 律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錯覺性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Scan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各自에 따라 Scan이 다르겠지만 大部分이 어느 傾向的으로는 비슷한 結論에 到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 비교적 쉽습니다만 어떤 건 정말 따지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要컨대 우리 生理의 錯覺이지요. 이진 내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 Scan하는 一般的 理論이 있습니다. 美學關係 같은 것을 心理學的으로 分析을 다하는 公式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公式을 우리 國文學에 適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批判받게 될지 모르지만서도 그런 公理는 있습니다.

< 司 會 >

다음은 역시 李能雨先生에 대한 質問인데 崔運現氏가 보낸 質問입니다. 하나는 主格에 關한 것이고 하나는 15세기 國語에 있어서의 聲調와 Rhythm에 關한 質問입니다. 時間關係로 答辨을 단시간 內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

먼저 質問에 대해서 格助詞 「」뿐만 아니라 龍歌에 보면 子音하나로 된 格助詞 같은게 많이 나오지요 스, ㅎ 등 나오는데 그걸 전부다 Scan해 봤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한字로 다 따져 봤습니다. 한字로 따졌는데 그것 뿐 아니라 完全한 字에 있어서도 부득이하게全體에 制約이 되어서 不得已 5개(完全한 單字)라도全體로 볼적에 도저히 다섯개로 容恕할 수 없다, 그럴 때는 그건 過音節이다, 말하자면 4개(Syllable)로 된 One foot인데 이진 過音節로 되었다하여 버린 적도 있고 세音節(完全)이면서도全體로 볼 때 4로 따지지 않으면 안된다, (武德을) 같은 것은 單字는 없어도 음절 foot로 봤습니다. 完全한 單字도全體로 보아 加減이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 「스」, 「ㅎ」도 그런 式으로 어떤 경우는 單字로 따지고 어떤 경우는 안따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要컨대는 自然科學과 같이 똑떨어지는 解答이 안나오더군요. Scan을 할 때 過하면 過음절이다, 不足하면 缺음절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15세기 言語에 있어서는 특히 Tone 같은 것이 意識된 흔적이 보인다고 생각되는데 그런건 Scan한데 作用이 안되느냐 좋은 質問을 했습니다. 事實 우리 國語뿐 아니라 Scan하는데 여러 가지 方式이 있습니다만 英語나 獨에서는 Stress accent 같은 것이 主가되어 그게 基準이되어가지고 하나하나의 foot가 형성되어 갑니다. 強勢主義·強弱主義 Stress accent가 심하지 않는 佛語나 Italy 語 Spain 語는 그 accent가 심치 않기에 Syllable을 생각하고 거기다가 아까 말한 心理가 加味한 accent를 잡아 Syllable system을 使用한 결과를 볼 수 있고 中國語와 같이 完全히 意味를 가진 孤立語 이런건 accent가 있거나 없거나 (pitch가 있긴 있으나) 이러한 대체로 세계의 system이 發見되는데 (이 이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國語를 또 여기다 해당

시킬수도 없지만 그걸보면 Quantitive System은 아닌것 같아요. 글字 하나 「아」字 하나를 쓴다고 意味가 나오는 것 아니고 하나의 意味를 가질려면 鄭教授가 조사한 거와 같이 「2音節」乃至「3音節」거기다 하나의 文章을 구성하려면 ㅏ가 붙고 語尾가 붙으니까 相當히 많거든요.

그렇게 많은 單語들이 모여야 우리 들에게 어느 映像을 주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字數를 Scan 한다는 것은 그런 點으로 어려운 것이다, 그외 것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Tone, accent 같은 것 事實 오늘날 우리 말에도 accent가 있긴 있답디다요. accent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맞춤法, 有聲音, 無聲音이라든지 破裂音 또는 有氣音 등,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要컨대 問題는 어떻게 보다더 奏效的인 것이냐 이것을 찾아야될 것 같아요. 그런데 現在國語를 보면 Metri에 영향될 만큼 accent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투리 빼놓고). 그래서 Accentual System을 잡을 수도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15세기 當時에 보면 表記를 보아도 傍點하나 또는 두개 등 있어서 혹시 그런 것이 基準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봤는데 그것으론 一定한 法則이 안나와지더군요. 가령 傍點은 두個 붙인건 비록 한字가 나온다 해도 두音節로 봐서 하나 나오면 석點을 준다. 이런 式으로 계산해봐도요.

龍飛御天歌의 Genre

— 叙事詩로서의 龍飛御天歌 —

張 德 順

※ 本發表의 內容은 錄音事情으로 因하여 要旨로써 代한다.

1. <龍歌>를 叙事詩로서 볼 수 있는가?

지금까지 이 方面의 學者들은 <龍歌>를 「樂章」(가람, 陶南), 「樂歌」(金思燁), 「訟詠歌의 一種」(李明善)등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音樂을 前提로한 用語들이다. 적어도 <龍歌>를 文學的立場에서 다룬다면은 文學의 樣式的 方法을 援用해야 하겠는데 그렇다면 <龍歌>는 叙事詩의 樣式으로 다룰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까지 <龍歌>는 우리 學界에서 語學的 分野에서는 가장 貴重한 資料로서 研究의 對象이 되어 왔으나, 文學적으로 이를 깊이 考究한 일은 별로 없다. 金思燁氏가 「李朝時代의 歌謠研究」에서 比較的 廣範圍하게 考察하고 그 文學的 價値를 批評한 結論에서,

龍歌는 太祖 太宗朝에 이루어진 모든 頌禱歌를 集大成한 것이면서 詞華의 豊富함, 資料의 多岐, 多彩, 規格이 新境地를 터워 嶄新함, 修辭上 間然함이 없는 格式을 具備하여 있는등 宮廷文學의 巨璧이며 실로 歌謠界의 最高峰에 位置한 名作이다. 참으로 이 一篇이야말로 金剛山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내어놓을 수 없는 우리 民族의 永遠한 寶典인 것이다(p. 193)

라고 極口 讚揚해 마지 않았으나, 餘他的 學者들은 거의 <龍歌>의 文學的價値에 대해서는 극히 冷淡하엿은 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金思燁氏가 <龍